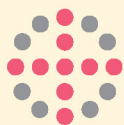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랑의 노래 영원하리라

오 복 자 수녀

살아 있음은 사랑하기 위함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

사랑하기 위함이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사랑이기에

사랑의 노래 영원하리라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CONTENTS

권두시

02

사랑의 노래 영원하리라 | 오복자 수녀

04

자궁경부암에 대해 알아 봅시다 | 백경돈 과장 (산부인과)

팀원들의 이야기

06

맛잡은 두 손 | 김혜란 호스피스(101병동) 간호사

07

초심을 떠올리며 | 정미경(아폴로니아) 호스피스자원봉사자

08

우리는 수지맞는 장사를 한다오 | 박수정(이레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환자와 가족의 사랑이야기

09

다니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 박영출 故 안병일님 부인

10

사랑하는 언니에게 | 신정금 故 신금애님 여동생

11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모저모

1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14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입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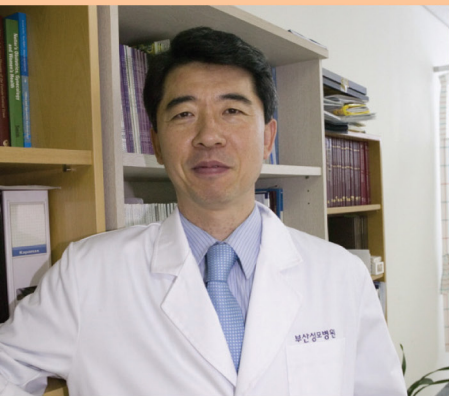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다.

“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산부인과 과장 백 경 돈

자궁경부암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궁경부암은 어떤 병인가요?

자궁은 체부와 경부로 구분되는데 경부는 자궁의 아래쪽에 위치한 좁은 입구 부분으로서 여기에 발생하는 암을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여성암 중 빈도가 2위,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매년 약 50만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최근 전체 환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40세 미만에서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매년 약 10,000여명이 발생하여 4,000여명 정도가 사망, 우리나라는 여성암 중 발병률 5위, 매년 약 4,00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 1,000여명이 사망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나요?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는 16세 이전의 조기의 성경험, 성적 대상자가 많은 여성, 높은 출산력, 성병, 면역기능의 저하, 경구피임제의 장기복용, 흡연,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여성 등이 해당됩니다.

자궁경부암의 증상과 진단은 어떻게 되나요?

자궁경부암은 45세에서 55세 사이의 여성에서 주로 호발하며 약 20%의 환자에서는 진단시 증상이 없습니다. 성교 후 경미한 질 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초기의 증상은 혈성 분비물, 질 출혈 등의 비특이적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병기가 진행이 되면 성교 후 질 출혈이나 월경외의 출혈, 악취를 동반한 혈성 분비물 등이 나타나며, 빈혈, 배뇨 및 배변 장애, 골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하지 통증, 부종, 요통 등 전이에 의한 증상과 직장, 질, 방광에 누공 등이 생길 경우 대, 소변이 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세포검사를 일차적으로 시행하며, 결과가 비정상적이면 즉시 질 확대경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이 확인되면 질 확대경 조준하 자궁경부의 생검을 시행해 최종적인 병리 조직학적 진단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조적 검사로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DNA검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CT, MRI, PET-CT 검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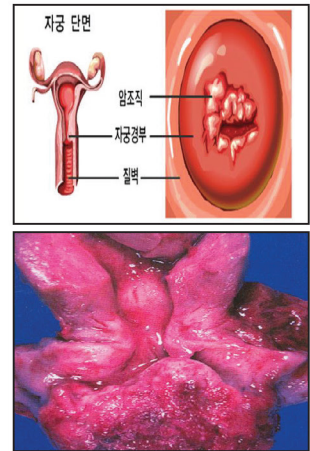


자궁경부암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궁경부종양은 상피내종양 단계에서 진단, 치료되면 완치되지만 침윤암으로 진행하면 여러 치료를 해도 근치율은 정도에 따라 감소하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 혹은 동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로 나눕니다.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임상적 병기이며, 병기 1기와 2기 초까지는 광범위 자궁절제술과 골반 림프절 절제술이 적용되며 예후는 양호합니다. 병기 2기 말부터는 수술이 불가하여 동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가 적용되며 예후는 불량해집니다. 수술은 개복을 주로 하지만 복강경이나 최근에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암세포의 골반림프절전이, 자궁방 조직 침윤, 수술 절단면 양성, 자궁경부 기질심부 침윤 등 수술 후 치료 실패의 고위험 인자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생존률 향상을 위해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치료가 권장되어 왔지만 암의 국소 재발을 감소시키고 원격 전이도 감소시켜 보조적 동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은?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의 상피내 종양(이형성, 상피내암)의 단계를 거쳐 악성인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됨으로 전구 병소인 상피내 종양을 조기 진단해 치료하면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자궁경부암의 위험인자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 자궁경부암 세포검사를 매년 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도 만 9세 이상의 여성에게 접종하여 발생률의 감소와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권고안은

-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표준검사는 세포검사이며 대상은 만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입니다.
- 최근 10년간 3회 이상의 연속된 세포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는 70세에 종료할 수 있지만, 최근 20년간 중등도 이형성이상의 병력이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검사를 지속합니다.
- 검진주기는 1년 간격이나 진단, 치료, 추적검사의 필요성에 따라 조절됩니다. 연속된 3회의 세포검사가 정상이거나, 30세 이상에서 세포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모두에서 정상이면 검사주기를 2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잡은 두 손



김혜란 호스피스(101병동) 간호사

아픔에 지쳐버린 당신께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봅니다.

고통에 힘들어하던 당신께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봅니다.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주면
도리어 내 손을 꼭 잡아주던 당신을 그리어 봅니다.

보잘 것 없던 내 작은 손을
환자를 보살피는 귀한 손으로 만들어주던
당신의 그 손을 다시 한 번 그리어 봅니다.

당신에게 받은 두 손의 온기를
저는 다시 나누어 주려 갑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를 응원하였던 따뜻한 그 손의 사랑을

초심을 떠올리며....

정미경 (아폴로니아)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월례회 때 마음나누기 시간을 통해 신부님께서 “나는 왜 호스피스 봉사자가 되었는데?”라는 질문을 하셔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심.. 초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2000년 3월,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이들과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이며,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 10년이 훌쩍 넘었다. 환자,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새롭고, 변함없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과의 만남이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심히 지나쳤던 생활 속의 작은 기적들을 깨닫고, 내가 살아온 삶과 집착하고 있는 것들과의 정리,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감사의 시간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나는 환자와 가족들은 대략 1년에 500여명은 넘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늘 조심스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므로 그날 만나게 될 환자와 부족한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로 시작한다.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자칫 교만해지기 쉬우므로 최대한 겸손하고 낮춰진 마음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그것이 신체적 통증일 수도 있고, 남겨진 가족 간에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일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 자신의 삶을 정리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떠나는 안타까움을 본적이 있었다. 그래서 호스피스 봉사자는 팀원들과 정보를 공유, 협조하여 환자 및 가족들에게 의료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다.

호스피스 봉사자의 역할은 환자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자세에 따라 떠나는 모습이 다르므로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가보지 않은 두려운 세상에 대한 안내자가 되어야 할 때는 환자의 신앙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환우들과 제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때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청해 본다.

- 2014년 10월 8일 국립암센터 주관 호스피스 우수봉사자상 수상 -

우리는 수지맞는 장사를 한다오

박수정(이레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풀벌레 소리 처량하게 울어대는 가을의 문턱에서 지나온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한지 어언 4년째 환자를 씻겨드리는 목욕봉사를 하고있다. 전생에 때밀이 아줌마였을까? 가끔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싫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떤 날에는 봉사시간이 될 때 몸살이 났어도 환자들이 목욕할 것을 기다린다 생각하니 내 몸이 어느덧 가벼워지고 목욕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냄새, 힘든 마음이 사라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씻겨 드렸다. 어쩔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 이곳 환자들은 몸이 허약해서 한여름에도 히트를 켜 놓은 채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한분의 목욕이 끝나면 목욕봉사자인 우리의 몸은 땀이 범벅이 되어있다. 어떤 분은 평생 남에게 이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쑥스러워하시고, 어떤 분은 목욕 후 너무 시원하다고 좋아하셨는데 그 이튿날 선종하시는 분, 다음 세대에 만나면 대신 꼭 씻겨 주겠노라고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시며 우리를 천사들이라 하실 때 마음이 숙연해졌다. 시원함과 감사함에 '왜 힘든 봉사를 하느냐'고 두 손잡고 우시는 분들... 그 눈물속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심장이 찢어지도록 아팠으며 서로 부둥켜안고 울기도하고, 달래보기도 했다. 평생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도 말씀하시고, 노래도 함께 부를 때도 있어 흐르는 물소리가 반주되어 심금을 울렸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별이 그리움으로 변하여 하늘나라에 안부라도 묻고 싶었다.

매주 만나는 환자들에게 과연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피며 하느님 곁으로 보내드렸는지 생각했다. 수많은 환우들과 이별을 한 후 여기까지 왔는데 나이와 무관하게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까지 안고 오시지 않았던가? 누군가가 내게 삶속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이었냐고 묻는다면 목욕 봉사할 때 이라고 말하고 싶다. 스스로 선택한 봉사이기에 환자들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으며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느끼고 또 느낀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설렘은 왜 그럴까? 지금 이 순간 나의 힘이 닿는 그날까지 봉사하리라 다짐하면서 함께 봉사하는 김두순(루시아), 정혜경(바울라) 두 분께 이 우수봉사자상을 바치고 싶다.

우리 목욕봉사자는 목욕 후 지칠 때 '우리는 수지맞는 장사인데 교통비는 2,400원, 목욕비는 5,000원이니 남는 장사라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하고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영광을 드린다.

—2014년 10월 8일 국립암센터 주관 호스피스 우수봉사자상 수상—



다니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박영출 (故 안병일님 부인)

천사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나 마누라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당신이기에 나는 항상 불평이 많았어요. 마누라는 내 곁에 있으니 언제든지 챙기면 되지 하시다가 “이젠 마누라한테 좀 잘 해야지 하고 전을 펼치자, 해는 서산에 지고 있구려.”하는 당신의 얘기에 내 가슴은 왜 이리 아픈가요?

시골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났기에 장학생으로 합격한 중학교도 못가고 친구들이 교복입고, 가방 메고 자전거 타고 읍내 중학교 갈 때 당신은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어린나이에 가난한집 장남이라는 명예를 안고 늙은 노부부의 집에 입만 먹여주는 대가로 소 먹여 주는 아이로 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위로의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할 말을 잃어 버렸어요.

여보! 당신은 저에게 쪽팔린다고 망설였지만 중학졸업검정고시, 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여 최종학력은 대졸이 되었지요. 그런 당신이기에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면 해주어 주위 분들이 아들 저렇게 키워 어떡하려고 하나?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 아들이 잘 자라주어 어엿한 직장도 가지고, 예쁜 손자, 손녀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지요. 이제 우리는 조그만 건물도 마련하고 우리 둘은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요. 여행도 다니고, 맛난 것도 먹으며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보자고 하자 심술 많은 암이란 놈이 우리를 찾아 왔네요. 당신은 건강을 잃었지만 많은 분들께 충만한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기도와 격려, 특히 부산성모병원의 신부님, 의사선생님, 수녀님, 호스피스팀장님, 사회복지사님, 간호사님, 자원봉사자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천사 같은 사랑의 손길 다시 한 번 하느님께 감사드렸지요. 누구나 마지막엔 하느님 나라로 가야된다는 것은 알지만 두렵기만 했었는데 이곳처럼 이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보! 당신 하느님 곁에 가시면, 그 힘들었던 장남의 명예 벗어버리고, 성모님과 성인들과 수호천사들과 잘 계세요. 당신이 천상에서 저에게 노을이 되어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건강하게 살면서 당신 못 채운 평균수명까지 다 채우고 천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보, 사랑했고, 사랑합니다.

다니엘님 답신.

고맙소, 새삼스레 서러웁의 눈물을 흥하게 뺏드는구려.
 78자기 후회하게 뺏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과 결혼하더라도
 4-5년 후에 할 것을.. 하는 생각이라오. 그랬으면 좀 나았을까?..
 아무튼 고생시켜 미안하오 ~~~

故 안병일(다니엘)님은 2014년 9월 25일 선종

사랑하는 언니에게

신정금(故 신금애님 여동생)

언니는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무서운 병마와 함께 투병한지 34일 되던 9월 15일 성모통고 축일에 성모님의 은총 속에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언니, 참 많이 보고 싶고, 언제나 우리 동생들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맞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산성모병원 사별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있어 왔는데 언니가 우리 곁을 떠난지 어언 53일이 되었네요. 함께 지냈던 시간 속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동생들에게 ‘나는 괜찮다’ 하면서 오히려 슬픔에서 저희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었지요. 그러나 언니는 그 웃음 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서서히 다가오는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나무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혼자서 마음속에 간직한 채 하느님 품으로 갔지요. 언니, 하늘나라에는 슬픔도, 고통도, 고생도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해요. 주님 품에서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산성모병원에 입원 하던 날 언니는 특실에서 너무 좋아 하시면서 ‘두어 달 동안 여기 있을란다’ 하시던 그 모습이 옛그제 같은데 시간은 이렇게 지났네요. 그 동안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하느님께서 더 편안하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언니, 모든 것을 다 잊고, 또 저희 동생들 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يس.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 죽어야 부활이 있듯이 항상 마음속에 언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잘 해드리지 못하고 섭섭하게 했던 일들을 모두 용서해 주يس. 부족하다보니 언니가 섭섭했던 그런 일들을 최선이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내년 봄 진달래 피는 계절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세요. 언니를 위해 미사(전대사)도 드리고, 매일 연도도 드립니다. 늘 언니를 위해 기도하는 동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힘내고, 하늘나라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길 두 손 모아 빌어 봅니다. 우리가 함께 형제간으로 만나서 이 세상에서 참 좋았다고 말할 날을 기다리며 언니 평안을 빕니다.

故 신금애(마리아)님은 2014년 9월 15일 선종



〈생각하는 場〉

프랑스에는 ‘알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다.

알버트 까뮈 (Albert Camus, 1913~1960)는 ‘이방인’, ‘시지프스의 신화’, ‘반항적인 인간’, ‘오해’, ‘계엄령’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썼고, 1957년에는 ‘전락’이란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알버트 슈바이처 (Albert Schweitzer, 1875~1965)는 신학자, 철학자, 음악가, 의사였다. 그는 프랑스 식민지인 가봉에 건너가 원시림 속에 병원을 세우고 흑인의 벗이되어 사랑과 헌신의 봉사로 1952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한 분들이다. 또한 그와 걸맞은 이름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남긴 것은 서로 다르다.

까뮈는 노벨 문학상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좋은 별장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여생을 즐기며 편안히 살던 중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 상금으로 아프리카 밀림 지대에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과 수용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일생을 봉사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별장과 병원은 아직도 남아있다. 까뮈의 명성과 재능에 비해 그가 남긴 별장은 어쩐지 아쉬움과 애석함을 느끼게 한다. 반면 슈바이처가 남긴 병원과 행적은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내 삶이 끝나는 날, 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미국 제35대 대통령인 존 에프 케네디(J. F. Kennedy, 1917~1963)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4가지 역사적인 질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첫째, 당신은 진정 용감하게 살았는가?

둘째, 당신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가?

셋째, 당신은 매일 매일 성실하게 살았는가?

넷째, 당신은 무엇에 당신 자신을 헌신했는가?

만약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섰다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링컨은 평소 자기 주변 사람에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평가받기를 기대했다고 한다.

“저 사람은 잡초는 뽑고, 꽃은 심다 간 사람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기억할까?

NEWS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이모저모)

1.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례발표회 참석 (2014년 7월 11일~12일)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례발표회에 참석, 완화의료의 전망과 수가, 팀원소진 예방활동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2. 타기관 견학

타 지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들을 방문하여 우리가 행하는 다양한 활동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팀원들의 소진예방과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 1) 강릉 갈바리의원(7월15일~16일)
- 2) 서울성모병원(9월26일)



3. 2014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행사

➤ 제5회 사진전 (10월 13일 ~ 30일)

부산성모병원 1층 로비와 10층 완화의료센터에 호스피스 관련 34점의 사진을 전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하였다.

- 포스터 외에 “호스피스 팀을 위한 응원 메시지”
- “포토존” 플라로이드 사진 찍어주기



➤ 홍보 : “부산성모병원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주보지 게재 및 인근성당 홍보

⇒ 미사 참례 후 본원 완화의료센터 소개 및 동영상 상영, 리플렛과 작은 선물 나눔, 병원 인근 4곳의 성당(문현, 용호, 석포, 이기대)을 방문하여 본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홍보 하였다.



➤ 2014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 (10월 28일 10:30~15:30)

2014년 사별 가족의 만남의 날에 45명의 가족이 참석하여 팀원, 자원봉사자들 외 관계자 100여분이 추모미사와 점심식사, 공연, 웃음운동, 편지쓰기, 풍선 날리기 등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 돌아가신 분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NEWS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심화교육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심화교육으로 원목실장이신 한종민(아누아리오)신부님께서 영적 나눔 강의가 4차례(5월, 7월, 9월, 11월) 있었다. 성화와 성서말씀을 묵상,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개인의 성찰과 섬기는 이의 자세를 재인식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의미 있는 돌봄을 실천하도록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2. 우수자원봉사자상 수상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2014년 9월 17일)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 모범자원봉사자상은 본원 박기순(아네스)님, 국립암센터(2014년 10월 8일)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 우수자원봉사자상은 정미경(아폴로니아), 박수정(이레네)님께서 수상하였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훌륭한 활동들을 하지만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보람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야유회

2014년 10월 20일 화합과 소진예방을 위해 호스피스자원봉사자들의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경치가 아름답고 걷기 좋은 이기대 갈맷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었다.



4. 국립암센터 완화의료주간 행사 참석

2014년 10월 8일 직원과 호스피스자원봉사자들이 16명 국립암센터 완화의료주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 프로그램은 음악공연 및 호스피스인식 확산을 위한 걷기 거리캠페인에 동참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NEWS (호스피스 자원봉사들의 활동)



음식 나누기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특식



죽일 · 생일 축하



세례 축하



환자와 가족 심리 · 정서지지



아로마발마사지



목욕봉사



이미용봉사



침상 정리



음악요법



차요법



미술요법



원예요법



풍선요법



명상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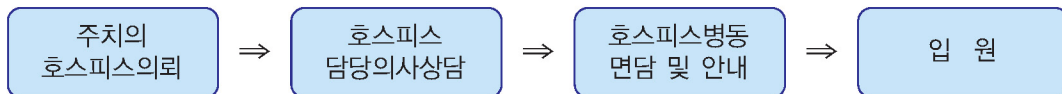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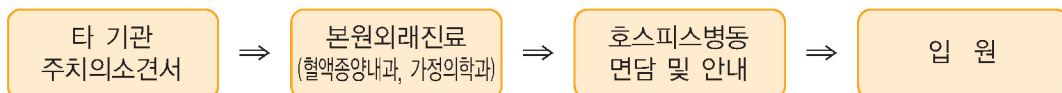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1. 입원 절차

본원 입원환자



타 기관 환자



- ☞ 구비서류 : 1.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2. 최근 검사자료(CT, MRI 복사)
3.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4. 의무기록사본 등

2. 요법 프로그램

구 분		요 일
음악요법 및 연주	아코디언 / 피아노 연주	격주수요일 / 매주화요일
	플루트, 우쿨렐레연주와 노래	월 1회
	모자이크여성중창단/색소폰	
	오카리나 앙상블 & 기타와 하모니카 노래 협연	
	푸른 음악회 연주회	
미술 / 원예		매주화요일/격주 수요일
아로마 마사지	발, 손, 전신 지압 등	필요시 수시
차 요법/명상		매주수/목요일 오후
기 타	리본공예, 풍선아트	월 1회
	한국무용, 창 공연 및 로즈앙상블 연주	

3. 입원환자 및 가족교육

- 1) 시간 : 매주 목요일 10:30 ~ 11:30
- 2) 장소 : 10층 완화의료센터 프로그램실

4. 사별가족모임

- 1) 시간 : 짝수달 넷째 주 화요일 14:00 ~ 16:00
- 2) 장소 : 10층 완화의료센터 프로그램실
- 3) 대상 : 완화의료센터에서 임종한 사별가족 누구나

5. 추모미사 : 매달 넷째 주 화요일은 완화의료센터에서 임종하신 분들을 위해 오전 11시 4층 성당에서 있습니다.

6. 미사 및 봉성체 시간안내

- 1) 미사시간 : 월요일~금요일(오전 11시),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오전 9시)
- 2) 봉 성 체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미사 후, 필요시

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혈액종양내과	가정의학과	혈액종양내과	가정의학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2,4주) 가정의학과(1,3,5주)

■ 혈액종양내과 외래진료 051) 933-7253 ■ 가정의학과 외래진료 051) 933-7971
* 단 가정의학과 외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료함

- 문의 및 예약안내
- 병 원 대 표 전 화 TEL: 933-7114
 - 완화의료센터상담 TEL: 933-7133
FAX: 932-8636
 - 완화의료센터병동 TEL: 933-7100
 - 추 모 원 TEL: 933-7480, 7129

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동래방면 131번
- 마을버스 남구 2, 2-1, 8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해운대방면 39번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 (셔틀버스 운행)